



# 일본, 경제의 선순환이 시작되다

버블 붕괴 후 10년 이상 고전하던 일본 경제가 최근 내수와 수출 양면에서 두드러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과 소비, 수출과 생산, 기업의 설비투자 등 모든 경제지표들의 개선조짐이 뚜렷하다.

경제성장률 역시 8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글 / 벤처기업협회 사업 2팀

**일** 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생산거점이 돌아오고 있는 이른바 U-turn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불황의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던 단순 수출 의존형 구조에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 일본, 내수시장이 성장을 동인

2003 회계연도(당해 년 4월~익년3월)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0년도(3.0%) 이래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일본 경제가 두 차례의 마이너스 성장과 낮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3.2%의 성장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과거와 달리 내수부문의 회복이 성장률 상승의 동인이 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일본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이 단지 1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현재의 경기회복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안한 세계 경기 속에서도 일본 경제의 내수 회복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최근에 볼 수 있는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다.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확연히 달라진 일본 경제의 실상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지난 3년 간 '개혁 없이는 성장은 없다'라는 기본 이념 하에 규제완화, 금융개혁 등 親시장적 구조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성장 호조세를 보이는 일본 사례를 통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빠른 성장만이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공동화와 기술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 하에서 수익구조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IT투자(소프트웨어부분)확대를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있었다.

1999년대 일본 정부가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요즘의 일본 경제를 보면 수출호조에 따라 설비투자 증대, 그리고 개인소비 회복이라는 선순환 경기회복체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 생산성 혁신에 기초한 생산기지의 U-turn현상

일본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효율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다시 옮겨오고 있으며 산업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한다. 생산성 혁신에 기초한 일본기업의 생산기지 U-turn은 인건비는 해외가 싸지만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은 저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고유 기술 유출이라는 지적 재산 관리비용이 인건비 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일본 제조업의 부활과 달리 국내 기업들은 제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고 국내외 생산 모두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

#### 일본경제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현재 국내 기업들의 제조기술은 IT 등 일부 분야에서만 선진기업들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제조업에 대한 IT 투자는 전체 IT 투자의 10%미만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차세대 성장 산업의 중심에 있는 IT산업이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T 산업 부문에 수출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구조로 간다면 머지않아 10년의 경제 세월을 잃어버린 일본 경제의 뼈아픈 전철을 밟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1000여명이 넘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였다. 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위해 선택된 개발과제이다. 우리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직 빠른 성장만이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공동화와 기술유출 등과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일본기업의 생산기지 U턴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4. 9. 1  
2.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4. 7